안녕하세요 화학과 김재원입니다.

우선, 원 내로 유입되는 전염병 확산 방지 및 방역에 힘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5월 8일 자로 고대권 학우께서 원 내 체육시설 개방에 대해 건의드렸습니다만,

**'GIST 코로나CV 비상대책실무위원회(2020.5.8.)에서는 2020.6.23(1학기)까지는 실내 체육시설/실외 체육시설/ 외부인 차량 출입통제 등 현재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.'**

라고 답변 해주셨습니다.

하지만, 이렇게 중차대한 일에 우리 원의 다수이자 핵심 구성원인 학생들의 실질적 의견을, 전문가들 간의 회의에서 반영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. 또한, 우리 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위와같은 회의 결과가 도출 되었는지, 학생들은 그 회의에 다루어졌던 세부 내용이 궁금합니다. 행여나, 회의 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다수에게 공감을 얻는다 하더라도, 체육시설은 '폐쇄'라는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감에도, 대학원생들의 연구실 출근은 교수들의 '재량'에 맡기는 원 내 컨트롤타워의 이중적인 행보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학생들에게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매 한가지 입니다.

더불어, 4월 21일자 중대본 회의에서의 국무총리 정세균씨의 발언을 빌리자면,

**"특히 배드민턴장, 테니스장, 게이트볼장과 같은 야외 체육시설 개방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"며 "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겠으나 방역환경이 준비되는 대로 개방을 검토할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한다"**

라고 발표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, 정부출연 연구소 및 대학 광주과학기술원도 국민, 정부의 요청에 따라 빠른 방역작업 후 체육시설을 개방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.

현재 잔류해 있는 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정신적, 육체적 피로도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.

현재 체육 시설 개방을 바라는 모두가 전염병으로 인해 처해있는 상황을 가볍게 보고있는 것은 아니나, 앞서 언급한 정부의 지침과 학생들의 윤택한 교육 및 연구활동을 위해, 위원회 측에서는 체육시설 개방을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간곡히 부탁드립니다.